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기업 활동, 5년 만에 가장 빨리 확장
- CNBC: 보스톤 연은 총재 "인플레 목표치 상회 위험 가능성" 경고

[미국 금융]
- Bloomberg: AI 회의론 다시 꺾였다… 투자자들, 테크주 상승세 주목
- CNBC: 강한 경제 지표에 미 국채 금리 급등… 10년물 다시 5%

[비즈니스 스쿨]
- Bloomberg: AI가 바꾸는 경영대학원 사례 연구

[중동 전쟁]
- CNBC: 이란 "트럼프 위협은 미국의 절망감 표출”

[미중 관계]
- Bloomberg: 미중 정상, 패권 경쟁속에 ‘안전 가이드라인’ 추진

[인공 지능]
- YahooFinance: 미중 정상, 패권 경쟁속에 ‘안전 가이드라인’ 추진
- WSJ: ‘빅테크 AI 투자 확대 2조 달러로 3배 늘어야’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 금리 7% 돌파… 2년 만에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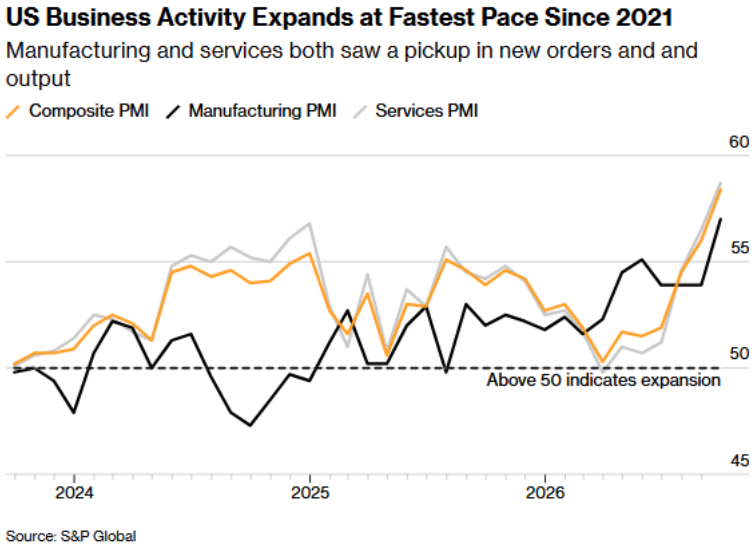
[공급망 일일 브리핑]
-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Business Activity Expands at the Fastest Pace Since 2021
미 기업 활동, 5년 만에 가장 빨리 확장

-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의 견조한 수요가 신규 주문과 고용 증가를 이끌면서 미국 기업 활동이 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했다.
- S&P Global이 발표한 9월 미국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8.4를 기록하며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 고용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리고 투입 가격 역시 연료 및 운송비 상승과 임금 인상 여파로 202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사

CNBC: Fed’s Collins warns inflation could be ‘notably’ higher after backing rate hike
보스톤 연은 총재 "인플레 목표치 상회 위험 가능성"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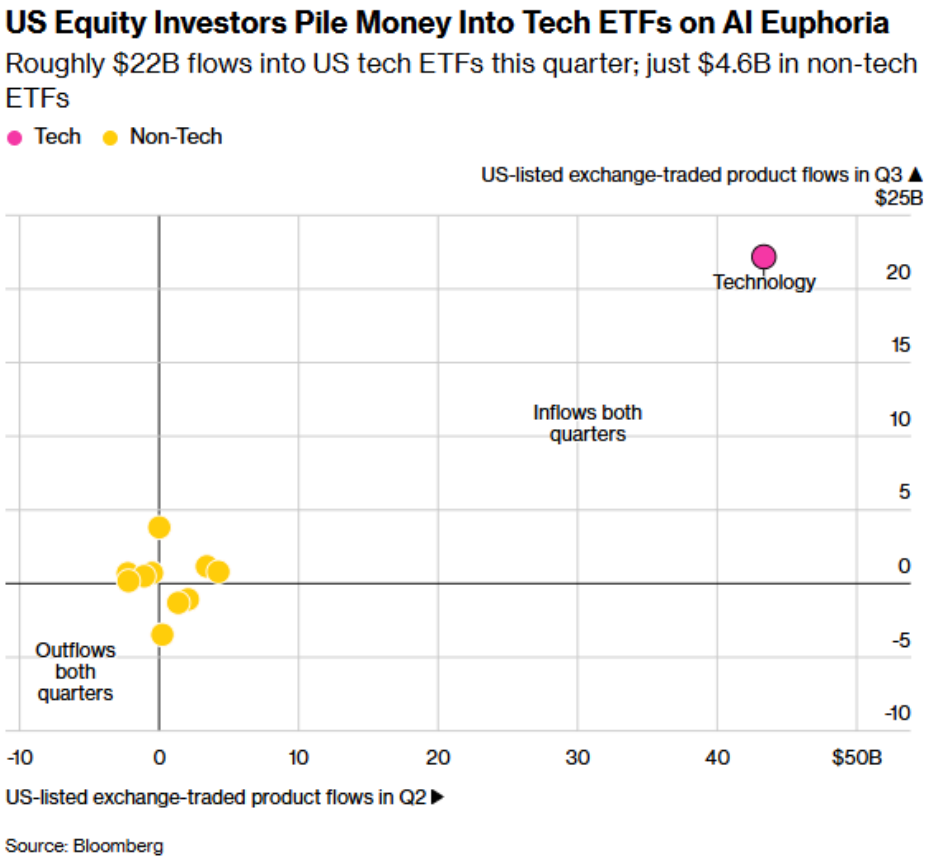
- Susan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Fed의 2% 목표치를 눈에 띄게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하며, 지난주 0.25%p 금리 인상 결정 지지 배경을 밝혔다.
- 그는 약간 더 긴축적인 금리가 물가 안정을 도울 것이라 설명했다.
- 그는 이어 노동 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5년 넘게 지속된 고물가를 잡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AI Skeptics Surrender Again as Traders Eye Path Forward for Tech
AI 회의론 다시 꺾였다… 투자자들, 테크주 상승세 주목

- 나스닥 100지수가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승 동력이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 이번 분기 들어 투자자들은 미국 테크 중심 상장지수펀드(ETF)에 220억 달러를 순유입했으며, 헤지펀드 역시 나스닥 100 선물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을 늘렸다.
- 기술주 중심 지수의 강한 상승세와 견조한 기업 실적이 시장을 이끌고 있으나,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계속되는 인플레,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사

CNBC: 10-year Treasury yield leaps to fresh 19-year high after hot economic readings
강한 경제 지표에 미 국채 금리 급등… 10년물 다시 5%

- 견조한 서비스업 및 제조업 지표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 2년물 국채 금리는 8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464를 기록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7% 급등해 주요 고지인 5% 선을 다시 넘어섰다.
- 30년물 금리도 5.347%로 올랐다.

- 9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는 58.7로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제조업 PMI 역시 56.7로 4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SYMBOL	COMPANY	YIELD	CHANGE
US10Y	U.S. 10 Year Treasury	5.054%	+0.087
US1M	U.S. 1 Month Treasury	3.879%	-0.003
US1Y	U.S. 1 Year Treasury	4.472%	+0.062
US2Y	U.S. 2 Year Treasury	4.872%	+0.095
US30Y	U.S. 30 Year Treasury	5.362%	+0.059
US3M	U.S. 3 Month Treasury	4.128%	+0.021
US6M	U.S. 6 Month Treasury	4.343%	+0.043

기사

[비즈니스 스쿨]

Bloomberg: AI Is Changing the Business School Case Study
AI가 바꾸는 경영대학원 사례 연구

- 미 경영대학원들이 전통적인 케이스 스터디 방식을 보완하거나 바꾸기 위해 AI 기반 시뮬레이션 툴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 Sébastien Martin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경영대학원 교수가 ChatGPT로 개발한 대화형 사례 연구가 대표적이다. 간단히 말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보여주게 된다.
-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경영대학원의 절반이 협상 및 위기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AI 시뮬레이션을 이미 도입했거나 개발 중이다.
- 결과 예측이 왜곡되거나 신뢰성 저하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상당수 교수진은 AI가 학습 효과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

[중동 전쟁]

CNBC: Iran says Trump’s threats a sign of ‘strategic desperation,’ floats conditions for Hormuz reopening
이란 "트럼프 위협은 미국의 절망감 표출”

- 이란 군 당국은 테헤란을 파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미국의 "전략적 절망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일축하며,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타결과 추가 군사 행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측은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 한편 수요일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브렌트유는 1백불 약간 높게, 텍사스오닐도 90달러를 약간 상회해 거래되고 있다.

기사

[미중 관계]

Bloomberg: Xi and Trump Seek Safe AI Without Slowing the Race for Supremacy
미중 정상, 패권 경쟁속에 ‘안전 가이드라인’ 추진

- 미중 정상은 무역 및 대만 문제 등 까다로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양국 모두 AI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는 데 뜻을 모았다.
-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양국은 AI 발전 속도를 제한하기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유출 우려와 같은 공통의 과제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보인다.

기사

[인공 지능]

YahooFinance: The future of AI growth rests on Big Tech's cash flow tripling to $2 trillion: Chart of the Day
‘빅테크 AI 투자 확대 2조 달러로 3배 늘어야’

-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지속되려면 이들 기업의 투자가 2조 달러 규모로 3배 이상 급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2026년 들어 AI 관련 투자액은 미국 전체 경제 성장의 약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 Goldman Sachs에 따르면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약 8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불과 7년 전인 2019년 지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사

WSJ: McDonald’s Pledges Billions in AI, Infrastructure Upgrades
맥도날드, AI 도입 등에 수십억불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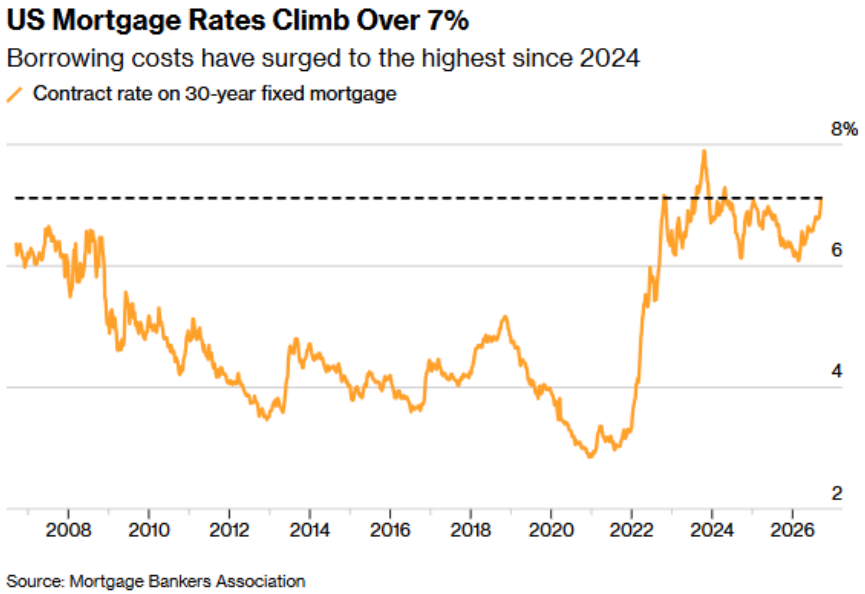
- 맥도날드가 가맹점의 AI 도구 도입과 주방·메뉴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
- 새 기업 전략에 따라 2036년까지 전 세계 가맹점에 임대료 지원 및 설비 투자 용도로 약 85억 달러를 투자한다.
- 음성 AI 주문과 직원용 챗봇 등 AI 기술을 통해 매장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수제 치킨 시범 도입과 Red Bull 혼합 음료 라인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버거 시장 1위를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글로벌 음료 및 치킨 시장 점유율을 1.5% 더 올릴 방침이다.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Surge Above 7% to a More Than Two-Year High
미 모기지 금리 7% 돌파… 2년 만에 최고치

- 미 모기지 금리가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며 고물가와 거래가 크게 침체된 주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 미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9월 18일로 끝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 금리는 7.12%까지 올랐다.
- 모기지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이는 만큼, 당분간 대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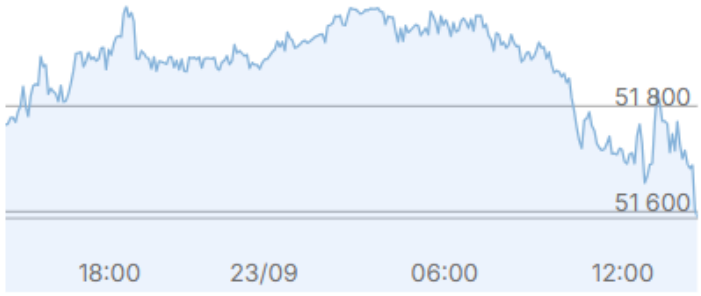
기사

- 이란이 미국의 군사 압박 완화를 조건으로 7일 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란 공식 당국과 파르스 통신이 이를 부인하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 해협 재개방 기대감으로 브렌트유는 98~99달러대로 떨어지며 2주 만에 100달러선을 밑돌았고, 뉴욕 나스닥 지수가 장중 2만7000선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드론 피격으로 중단됐던 동서 송유관을 재가동해 홍해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출을 준비 중이나 정상화까지는 수 주가 걸릴 전망이다.

- 한편 해협 내 통항 선박은 여전히 2척 수준에 그치고 유조선 피격 사건까지 발생해 불안감은 남아있다. 이에 한국 정유사들은 미국·서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는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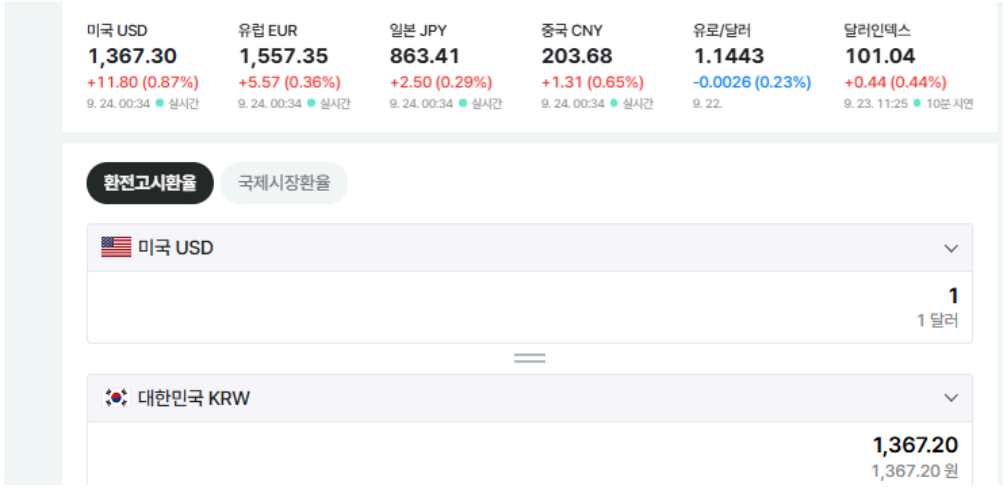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1,590.30	-273.5	-0.53%
US 500	7,719.40	-45.4	-0.59%
Dow Jones	51,687.91	-175.78	-0.34%
S&P 500	7,719.35	-45.48	-0.59%
Nasdaq	26,991.95	-252.33	-0.93%
S&P 500 VIX	14.59	+0.38	+2.67%
Dollar Index	100.763	+0.444	+0.44%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1 2/32	5.385	0.082
10-Year Note	4.625	-30/32	5.081	0.111
7-Year Note	4.5	-29/32	5.018	0.118
5-Year Note	4.375	-5/32	4.964	0.115
3-Year Note	4.375	-3/32	4.940	0.117
2-Year Note	4.75	-24/32	4.883	0.108
1-Year Bill	0	2/32	4.468	0.074
6-Month Bill	0	1/32	4.345	0.042
3-Month Bill	0	1/32	4.133	0.026
1-Month Bill	0	0/32	3.879	0.000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